“단 한번의 기적 선물, 망설이지 마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④ 전통문화마당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는 5월 1일 서울 우정국로에서 진행된 전통문화축제에 참가,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이사장 일면 스님도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털어놔 큰 감동을 줬다.

생명나눔, 5월 1일 우정국로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진행

단주 · 연꽃 만들기 등 체험공간
시민 300여 명 참여 큰 호응도

일면 스님 직접 시민 만나 권선
경험담 설명으로 큰 감동 전해

형형색색 거리를 장엄한 연등으로 축제 분위기가 완연한 서울 조계사 앞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권선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5월 1일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진행된 ‘전통문화마당’에 참가,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된 전통문화마당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고자 대형 부스 2개를 설치하고 본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한쪽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상담, 환자치료비 지원 설명이 이어졌고 다른 한 쪽에서는 불교행사 취지에 맞춰 단주와 연꽃 만들기 등 체험공간이 마련됐다. 이날 단주 및 연꽃 만들기 체험에는 시민 300여명이 참여, 큰 호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텀블러 등 다양한 선물은 연등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의 발길을 끌며 오후까지 시민들로 부스가 북적거렸다.

동국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참사랑봉사단 자원봉사자 15명은 오전부터 홍보팻말을 들고 우정국로를 돌며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환자 지원사업 등 생명나눔실천본부 사업 소개가 담긴 홍보 책자를 전달하는 순회 캠페인을 진행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번 캠페인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참사랑봉사단은 주요 축제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권선하고 봉사단 주관으로 동국대에서 정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큰 목소리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외치는 청년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부스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희망등록에는 가족 참여가 늘어 눈길을 끌었다. 남편과 함께 장기, 안구, 조직 등을 희망등록 한 이승희 씨는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나왔다가 의미 있는 일에도 참여하게 돼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평소 TV 등을 통해 이식을 기다리가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을 접하고 아이들과 장기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왔다는 이승희 씨는 “희망동록 모습을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 줄 수 있어 기쁘다”면서 “우리가족의 정성이 훗날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등회를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가 장기기증이 가져다주는 순기능에 감화돼 망설이지 않고 희망등록한 이들의 동참도 이어졌다. 친구와 함께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나선 황선아 씨는 “사후 화장이나 매장으로 없어질 몸”이라며 “간절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망설일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옆 부스에서는 단주 · 연등 만들기로 불교문화도 소개했다.


자원봉사자들은 거리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단체이기에 더욱 믿음이 간다는 시민도 있었다. 70대 한 어르신은 “각종 행사에서 희망등록 캠페인을 여러 차례 접했지만, 마음이 크게 동하지 않아 망설이다 피하곤 했다”면서 “스님이 이사장으로 계신다는 점이 믿음이 가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웃었다.

이날 오후 캠페인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도 함께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일면 스님은 시민들이 가진 장기기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설명해 큰 감동을 줬다. 스님 역시 장기기증 수혜자로서 2000년 간이식 수술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바 있다. 일면 스님은 “당시 저에게 간을 기증해 준 22살의 뇌사자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많이 지으면 복은 반드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희망등록 신청서 작성자는 100여명.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된 캠페인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큰 성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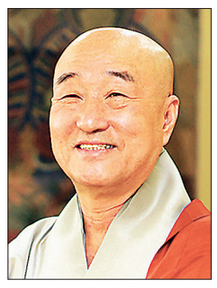
이형렬 생명나눔 사무총장은 “이번 캠페인은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명의 고귀함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많은 시민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해 생명나눔운동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거리 홍보를 통해 장기기증을 권선해 시민들의 동참을 받아내는 데 일조한 이상용 참사랑 봉사단 회장은 “장기기증이라고 하면 생소하고 막연히 무섭게만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면서 “정보 부족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제도를 잘 설명해 생명나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앞으로 천도재와 대학 캠퍼스 캠페인, 산사음악회 등을 통해 생명나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일면 스님 봉축사

지혜와 광명을 온누리에



오늘은 모든 생명이 부처님으로 탄생되는 날입니다. 모든 생명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법신(法身)을 갖추고 있고 만물은 일심의 근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계신 부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처될 사람임을 깨달았을 때 자비의 대중화를 이루고 스스로 불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무명 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희망과 기쁨을 주 시기 위해서 입니다. 부처님께서 진실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완성된 지혜를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일체중생에게 회향했다는 점입니다. 성도 후 열반에 이르기까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실천행은 중생들에게 희망과 존경과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간절한 염원과 지극한 정성으로 등을 밝혀 진리의 길을 가고자 서원 해야합니다. 이 등불은 부처님을 향한 찬미의 불꽃이어야 할 것이며, 우리들 자신의 불성을 일깨우고 중생의 어두움을 사르는 지혜의 등불이어야 합니다. 이 성스러운 부처님오신날 우리 모두는 미혹의 어두운 무명을 걷어내고 오늘 밝힌 연등불빛처럼 따뜻하고 밝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제28회 생명나눔 천도재

일 시 | 2022년 6월 6일 (현충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대웅전 (경기도 남양주시)
행 사 | 인간문화재 전수자 초청 살풀이, 바라춤 시연
사전접수 | 2022년 5월 9일 ~ 5월 27일 (토 · 일 · 공휴일 미접수)
현장접수 | 불암사 종무소 앞 회원 접수처
(행사당일 오전 8시 30분~10시)
비 용 | 영가 한 분당 2만 원 (농협 053-17-001346)
문 의 | 생명나눔 (02)734-8050 불암사 (031)527-8345

삶의 마지막 순간 장기기증을 통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장기기증자와 코로나19 희생자,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 분들의 영가를 축원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합동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신심 있는 불자님들께서는 천도재를 통해 부모 · 형제, 인연 있는 영가 분들의 극락왕생도 기원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모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삼담 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회 주 斗山일면
주 지 선 도
신도회장 전보현자
생명나눔후원회장 정명선화